

1.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널무덤과 독무덤을 만들었다.
- ② 권력을 가진 군장이 백성을 다스렸다.
- ③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 ④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 ⑤ 우경이 시작되어 깊이갈이가 가능해졌다.

정답: ④

* 신석기 시대에 대하여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한반도 전 지역에 고루 퍼져 있으며, 주로 큰 강 유역이나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다. 연대가 가장 이른 곳의 제주도 고산리 유적이다.

신석기 시대 유적(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등)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간석기와 낚시, 바늘 등의 뼈 도구가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아가리가 넓고 밑이 뽀족)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보다 앞선 토기로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뼈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돌괭이로 땅을 일구고 조, 피 등을 재배하여 돌낫, 뼈낫 등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돌갈판에 갈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가락바퀴(방추차)로 실을 뽑고, 뼈바늘(골침)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운 원형의 움집에서 살았다(양양 오산리 유적이 유명). 그리고 같은 씨족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 몇 개의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었다. 즉, 이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달리 정착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족장이 농사, 사냥 등 생산 활동을 지휘하였다.

①, ③ 철기 시대의 무덤으로 널무덤(土壙墓)과 독무덤(甕棺墓)이 널리 사용되었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중국 화폐인 명도전(제나라 화폐), 반량전(통일 진나라의 화폐) 등이 사용되었다.

② 권력을 가진 군장의 출현은 청동기 시대부터이다.

⑤ 우경은 신라 지증왕 3년(502)에 “처음으로 소를 밟가는 데 이용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적어도 6세기 이전에는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점차 확대되었다.

2. (가)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허리띠 고리(중국 지린 성 라오허선 촌 출토)

이것은 (가)의 유물로 말 모양 장식이 있는 허리띠 고리이다. 이 유물에 장식되어 있는 말은 농사와 함께 목축을 중시한 이 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마가(馬加) 등 주요 지배 세력의 명칭에서도 나타난다.

- 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 ② 민며느리제가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을 만들었다.
- ④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 ⑤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하였다.

정답: ①

* 부여에 대하여

부여: 고조선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국가이고, 가장 북쪽인 만주 지방에 자리하였던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꺼문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② 옥저는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③ 고조선은 8조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는데 오늘날 3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④ 고구려는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⑤ 동예는 폐쇄적인 씨족 사회의 전통이 매우 강하여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責禍)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3. 다음 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고구려의 관동명이 기록되어 있다.
- ②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東夷)로 칭하고 있다.
- ③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 ④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음을 보여준다.
- ⑤ 고구려가 신라의 요청으로 왜를 격퇴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⑤

* 중원 고구려비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원 고구려비는 장수왕 69년(481) 경에 고구려의 남하정책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비문에 고려 대왕과 신라 매금왕(寐錦王)이 형제처럼 위아래로 화합하여 '수천'(守天)하자는 구절이 있다. 수천은 천도(天道) 또는 천제(天帝)의 뜻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이다. 또 고구려왕이 남하하여 신라왕을 부른 뒤 신라왕과 그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 종주국으로 자처하고 있음.

또한 고구려는 자기 나라의 왕을 대왕, 祖王으로 불렀던 반면,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중화'(中華)로 여기는 의식을 전제로 하여 나온 표현으로, 당시 고구려는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변 국가나 종족들을 조공국과 같이 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 등의 표현에서 고구려군이 신라의 영토에 주둔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고모루성, 대사자 등 당시의 지명과 관직명도 기록되어 있다

⑤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고구려가 신라의 요청으로 군사 5만을 보내 격퇴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신(新)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羅)는 ‘사방(四方)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따랐다.

(나) 백제의 왕인 명농이 가랑(가야)과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 (신라의) 고간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 왕을 죽였다.

- 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 ②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 ③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 ④ 신라가 금관가야를 복속시켰다.
- ⑤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정답: ④

* 신라 국호 제정(503)과 관산성 전투(554) 사이의 역사적 사실

신라는 지증왕(500~514)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사로에서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503).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주.군제 실시, 소경 설치), 대외적으로는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사회.경제적으로는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실시하였으며(502), 시장 감독기구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509).

이어 법흥왕(514~540)은 병부와 상대등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와 공복의 제정(520)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여(527)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536)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532).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진흥왕(540~576)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흥왕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562). 특히, 백제의 성왕을 전사시키며(554, 관산성 전투) 한강 유역을 완전 장악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항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①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리다 개로왕 때에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수도 한성을 함락당하고(475), 문주왕(475~477)이 금강 유역의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② 백제 의자왕(641~660)은 장군 윤충을 통하여 신라 대야성을 획득(642)하였으나, 이는 후일 김춘추의 나.당 동맹 체결에 자극을 주었다(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음).

③ 고구려는 4세기에 이르러 중원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300~331) 때에 마지막 한(漢) 군현인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완전히 몰아 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⑤ 신라 문무왕은 나당전쟁에서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쳐 군마 3만 마리와 많은 무기를 빼앗았으며(675), 당의 수군을 금강 하류 기벌포에서 격파하며(676), 대동강 이남 땅에서 당군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5. 다음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양제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정벌하게 하였다. …… 군사가 모두 113만 3800명이었다. …… 군량을 운반하는 자는 군사 수의 배가 되었다.
- 우중문의 군대가 오골성에 주둔하였다. …… 고구려에서 군사들을 출동시켜 군수품을 실은 수레를 습격하였다.

<보 기>

- ㄱ.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ㄴ. 수를 멸망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ㄷ. 안시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이세민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 ㄹ. 평양에 설치된 안동도호부를 요동의 신성으로 축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고.수 전쟁과 살수 대첩

589년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가 동북쪽으로 세력 확대를 꾀하자, 고구려에는 위기가감이 점차 높아졌다. 이에,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남쪽의 백제, 왜와 연결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를 건국한 문제와 뒤를 이은 양제는 거듭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수의 침입을 미리 막고 전략상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랴오허 강을 건너 전략적 요충지인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에 수 문제가 침공해 왔으나, 고구려는 이를 물리 쳤다(598).

그 후, 수 양제가 황제에 올라 천하의 최고 통치자임을 내세우고 동북 아시아의 강국 고구려까지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다.

612년에 수 양제는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는 데 실패하고 바다를 건너 평양성 부근까지 침략한 수군 또한 참패하자, 초조해진 수 양제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투입하여 평양성을 치게 하였다.

우중문 등이 거느린 별동대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에 말려들어 평양성 부근까지 진군하였다가 크게 지치고 굶주려 결국 후퇴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이 틈을 타서, 적군이 살수를 건널 때 그 주력 부대를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별동대 30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싸움이 유명한 살수 대첩이다(612).

결국 수는 무리한 전쟁으로 인한 국력소모와 내란으로 결국 당에 의해 멸망되었다(618).

㉠ 수를 이어 당 태종 이세민도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여 국경의 여러 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마침내 당군을 물리쳤다(645).

㉡ 신라 문무왕 때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하여(675)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하였으며,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도 요동의 신성으로 밀어 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6.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지방의 주요 지역인 담로에 파견되었다.
- ②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 ③ 화백 회의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④ 어려서부터 경당에 들어가 유학과 활쏘기를 배웠다.
- ⑤ 신라 말기 호족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정답: ⑤

* 신라 6두품에 대하여

6두품은 관직 진출에 한계(6등급 아찬이 상한선)가 있어 중앙과 지방의 장관직에 오를 수 없어 득난(得難)이라 불리웠다. 그러나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였다.

특히 중대에 왕권이 전제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 세력은 약화되었고 반면에, 진골 귀족 세력에 눌려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6두품 세력이 왕권과 결탁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들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거나 행정 실무를 맡아 보았다.

유학자는 6두품 출신이 많았다. 통일 신라 초에 활약한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로 유명하였다. 설총은 유교 경전에 조예가 깊었고,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 교육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하대에는 당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6두품 출신의 일부 유학생과 선종 승려 등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최치원). 그러나 이들도 진골 귀족에 의하여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은거하거나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반신라 세력화: 최승우-후백제, 최언위-고려).

① 백제 웅진 시기에 중흥을 도모한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② 고려 말에 등장한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 세력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③ 신라의 최고 신분층인 진골은 화백회의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④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에 수도에 태학(372)을 세워 고관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장수왕대) 평민 자제들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7.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김흠돌 등의 악이 쌓이고 죄가 가득 차자 그들이 도모하던 역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잔당들을 살살이 찾아 모두 죽여 삼사일 안에 죄수 우두머리들을 소탕하였다. 이제 요망한 무리들이 숙청되어 근심이 없게 되었으니 소집한 병사와 말들을 돌려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졌으므로 이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 ① 우산국을 정벌하여 영토로 삼았다.
- ② 9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 ③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 ④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인재를 등용하고자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정답: ③

* 신라 중대 신문왕의 업적

신라 삼국통일 직후의 왕인 신문왕(681~692) 대에는 강화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왕권을 전제화 하였다.

신문왕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685).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문화적으로는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값은 사(682)를 짓고 추모하는데, 죽어서 바다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다. 이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적의 군사는 물러가고, 병은 낮고, 물결은 평온해졌다고 한다(만파식적).

① 지증왕(500~514)은 대외적으로는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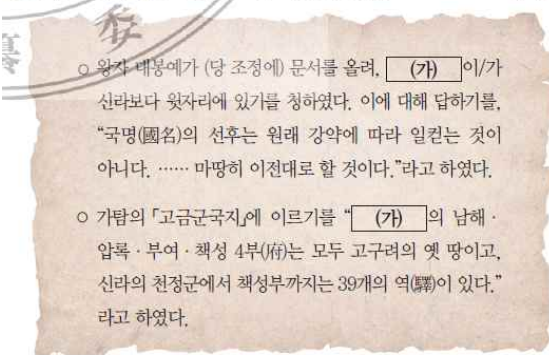
② 경덕왕(742~765)은 한화(漢化) 정책을 펼쳐 중앙의 관청과 관직명 및 9주 등 지방 군현명을 고유명에서 중국식으로 개칭하였다.

④ 법흥왕(514~540)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⑤ 원성왕(785~798) 때에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상.중.하.특품)를 마련하였다(788).

8.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왕자 태봉제가 (당 조정)에 문서를 올려, (가)이/가 신라보다 웅자리에 있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답하기를, “국명(國名)의 선후는 원래 강약에 따라 일컫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이전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가탐의 「고금군국지」에 이르기를 “(가)의 남해·압록·부여·책성 4부(府)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고, 신라의 천정군에서 책성부까지는 39개의 역(驛)이 있다.”라고 하였다.

- ① 전성기에 해동성국이라 불리었다.
- ② 5경 15부 62주의 지방 제도를 갖추었다.
- ③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위화부 등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 ⑤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정답: ④

* 쟁쟁 사건 신라도와 발해에 대하여

보기의 내용은 당나라에서의 발해와 신라 간의 쟁쟁 사건(897년, 외교상 서열 자리 경쟁 문제)과 신라도(발해와 신라 간의 교역로)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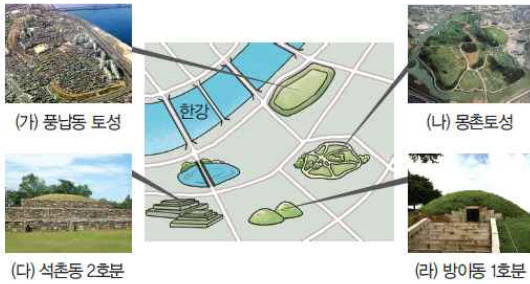
①, ② 발해는 전성기인 9세기 전반 선왕 때에 5경(상·중·동·서·중·경) 15부 62주의 지방 체제를 완비하였는데, 이 때에 말갈의 여러 부족을 복속시키고, 서쪽으로는 요동 지방에까지 진출하였으며, 북쪽으로는 헤이룽강, 동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요동, 남쪽으로는 영흥 지방에까지 이르렀으며,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발해를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을 가진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② 발해는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왕들이 인안(무왕), 대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⑤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다(727년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어받았다.”라든지, 759년 문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 ‘고(구)려 국왕’이라고 칭한 점이 나와 있다).

통일 후 신라는 중앙 집권 체제로 제도를 재정비하여 집사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료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집사부 시중의 지위를 높였고, 그 아래에는 위화부(인사 담당)를 비롯한 13부(병부, 조부, 예부, 승부, 영객부, 위화부, 창부, 공장부, 좌·우이방부, 사정부, 선부, 사록관, 예작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9. (가)~(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 보 기 —

ㄱ. (가) - 백제 도성 관련 유적으로 '대부(大夫)'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가 발견되었다.

ㄴ. (나) - 인조가 청의 강요를 받아들여 군신 관계를 맺은 곳이다.

ㄷ. (다) - 돌무지무덤으로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ㄹ. (라) - 돌무지덧널무덤으로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껌문거리가 출토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서울의 백제 문화유산

풍납 토성: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소재한 백제의 초기 왕성(王城)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곳. 백제 초기 수도로 서울 송파구의 몽촌토성도 추정되지만, 한강을 북쪽으로 끼고 반타원형 모양으로 3.5km를 둘러친 것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은 폭이 40m, 높이 9m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판축토성이다. 이 같은 거대한 규모의 토성을 축조하려면 대규모 인력동원이 있어야 함으로, 절대왕권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입증하게 된다. 또한 관직명인 대부(大夫)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의 출토는 이를 더욱 입증하고 있다.

몽촌토성: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공원 내 소재한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토성. 대부분 자연 지형을 이용하고 일부 필요에 따라 흙을 쌓거나 경사면을 급하게 깎는 등 인공을 기하였기 때문에 그 형태가 불규칙하다. 출토된 중국 서진(西晉)대의 동전무늬 도자기 조각과 중국에서 출토된 동전무늬 도자기를 비교할 때, 토성을 축조한 연대의 상한은 3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

석촌동 고분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돌무지무덤(적석총), 널무덤(토광묘) 등 잘 보존되어 백제 초기 모습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특히 2호분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초기 돌무지 무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방이동 고분군: 백제 무덤군으로 대부분 굴식돌방 무덤이다. 특히 1호분은 외부는 아치형, 내부 석실은 ㄱ자형으로 독특하다. 신라 후기에 볼 수 있는 소형 고배가 출토되어 신라설도 대두되고 있다.

㉠ 병자호란의 굴욕적 항복(군신관계)의 상징물인 삼전도비는 제목이 '대청황제공덕비(大清皇帝功德碑)'로 비석 앞면의 왼쪽에는 몽골 글자, 오른쪽에는 만주 글자, 뒷면에는 한자로 쓰여 있다.

㉡ 신라 초기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 덧널무덤은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껌문거리를 넣은 나무 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껌문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천마총, 황남대총 등이 유명하다.

1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이/가 완산주에 이르니 백성들이 환영하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그는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좌우에 이르기를, "신라의 김유신이 흠먼지를 날리며 황산을 거쳐 사비에 이르러 당의 군대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오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 ①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 ②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③ 중앙군으로 9서당을 설치하였다.
- ④ 광평성 등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②

* 후백제를 세운 견훤

상주의 군인 출신 견훤은 황해안의 해상 세력과 도적 떼 등을 자신의 군사 기반으로 흡수하여 자립하였다. 견훤은 나주를 거쳐 무진주(광주)를 점령한 후 복상하여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그는 중국(후당, 오월)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는 927년 대야성을 점령하고 이어 신라 수도 금성을 급습하여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자결케 하였고, 신라를 도우러 온 왕건의 고려군을 공산(대구) 전투에서 대패시켰다. 그러나 왕건의 고려는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935).

한편 후계 문제를 놓고 그와 갈등하던 맏아들 신검이 배다른 형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하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로 귀순하였고, 후백제 정벌에 앞장섰다. 결국 일리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신검의 후백제군을 크게 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견훤도 곧 사망하였다(936).

① 백제 성왕(523~554)은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긴(538) 뒤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와 5방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③ 통일 후 신라 신문왕(681~692)은 진평왕대부터 시작된(583) 중앙군인 서당을 9서당으로 완성하였다(687).

④, 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었다가(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정개)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의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또한,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으나,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11. 다음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점]



이제 백성들을 위해
조(租)를 수확량의 10분의 1로 하여
지나친 세금 징수를 금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축장을 설치하라.

- ① 12목에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② 서경을 복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 ③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 ④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⑤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정답: ②

* 고려 태조의 정책

태봉의 많은 관료들의 지지 속에 왕위에 오른 뒤 태조(918~943)는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태조는 이어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개국 공신과 지방 호족을 우대하여 이들을 관리로 등용하였으며,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고(940),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으며(정략 결혼),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사성 정책).

또한,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효시: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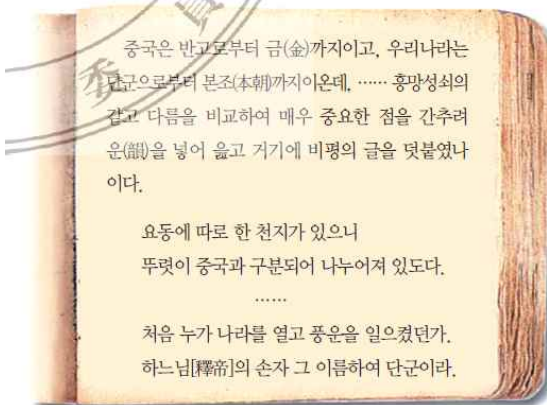
①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건의(시무 28조)를 받아들여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983)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

③ 광종(949~975)은 중국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제(958)를 처음 시행하였다.

④ 고려의 관료들에 대한 수조권 분급 토지인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⑤ 공민왕(1351~1374)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12. 다음 글이 수록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조선 왕조의 역사를 백과사전식으로 기록하였다.
- ②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 ③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다.
- ④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등이 수록되었다.
- ⑤ 고조선부터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정리하였다.

정답: ⑤

* 고려말 민족적 역사서 이승휴의 제왕운기

제왕운기(1287): 충렬왕 13년에 이승휴가 사찬하여 왕에게 올린 운문체로 서술한 역사시로 상(上)은 중국사, 하(下)는 한국사를 7연시, 5연시로 중국사(전설시대~원)와 본국(단군~충렬왕)의 역사를 병렬적(대등하게)으로 대비해 서술하였다.

단군 기년도 사용하였고, 단군(혈연 공동체), 기자(문화 공동체), 위만(민족 생활권)으로 이어지는 3조선설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3한, 3국, 예맥, 부여 등 모든 고대국가들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 하고, 그 생활권을 요동 이동 지역으로서,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천하세계로 파악하였으며, 발해를 본국 역사에 포괄하였다.

그러나 문화 의식의 폭이 식민지적 체질로 인해 제한되어서 체제가 帝 = 중국, 王 = 본국이라는 사대적 명분론에 입각해 있어서 자주성이 삼국사기보다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을지문덕과 강감찬의 기록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몽고 지배에 대한 체념과 냉소적인 당시 일부 지식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한계가 드러난다.

①, ③ 조선은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 때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실록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즉 백과사전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②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복궁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④ 고려 인종 때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고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단군 조선 ~ 고구려 ~ 고려로 이어져 온 역사 계승 의식으로 추정).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13.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ㄱ. (가) - 무애가를 지어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ㄴ. (가) -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敎藏)을 편찬하였다.
 ㄷ. (나) -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ㄹ. (나) - 돈오점수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수행을 강조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교선 통합을 위해 노력한 의천과 지눌

(가) **의천(1055~1101)**: 11세기에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 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또한 의천은 고려는 물론이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개경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나) **지눌(1158~1210)**: 그가 활동하던 고려 무신집권기 초기는 기강이 무너져 하극상 풍조와 농민들에 대한 수탈 심화와 불교의 타락, 그리고 농민, 하층민, 천민, 문신세력 등의 반란이 있는 등 사회가 어지러웠다.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예불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조계종은 지눌이 수선사를 열면서부터 매우 흥성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불교계의 중심적인 종파가 되어 많은 승려를 배출하였다.

지눌은 선(禪)과 교(敎)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관련: 권수정혜결사문). 또,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禪敎)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 신라의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원효(617~686)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그리하여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 신앙)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 의상(625~702)은 '화엄일승법계도'를 통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14.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정지상 등이 왕에게 아뢰기를,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니 신령스러운 용이 잠을 토하는 형국으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심에 응답하고 백성들의 뜻에 따르 시어 금을 제압하소서.”라고 하였다.

—「고려사절요」—

- ①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 ②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쳤다.
- ③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쌓았다.
- ④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⑤ 이자겸이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 정지상, 묘청 등의 서경 천도 운동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개경파)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 관리들(서경파)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정지상,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대화세(大花勢)의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주장하며,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 사상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의 충돌, 고구려 계승 이념(서경파)과 신라 계승 이념(개경파) 간의 갈등 등이 얽혀 일어난 것으로,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②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쳐들어 온 거란의 3차 침입(1018) 때에 강감찬(948~1031)이 지휘한 고려군은 귀주에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켰다(귀주 대첩, 1019).

③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1111)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기(기병), 신보(보병), 향마(승병)군으로 구성된 별무반(1104)을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④ 10세기 초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처음에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993). 그러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⑤ 동북 9성을 반환받은(1109) 여진족은 그 후에 더욱 세력을 키워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금을 건국하였으며, 거란을 멸망시킨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 조정에서는 논란이 치열하게 일어났으나,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금과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1126).

15.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문정공 유정이 김준과 함께 최의를 죽이고 권력을 왕실에 돌려준 후에도 이 기구가 없어지지 않았다. 권세자들이 사사롭게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 것은 탄식할 만한 일이다.

- 「역옹패설」 -

○ 공민왕 5년 6월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이 기구는 권신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조정에서 사람들에게 관작을 주는 본의와 어긋난다. 이제 이를 영구히 폐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대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 ② 원 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하되었다.
- ③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④ 최우에 의해 설치되어 인사 행정을 처리하였다.
- ⑤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되었다.

정답: ④

* 고려 말 인사 행정 기구 정방(政房)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는 1225년 자기 집 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국가기관이 되어 권문세족에 의해서 운영되어져 왕권을 제약하였다.

1298년에 충렬왕으로부터 선위를 받은 충선왕이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詞林院)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하였으나, 조비 무고 사건으로 동년 원에 의해 소환 폐위되며 무산되었다.

그 후 부활(충숙왕)과 폐지(충목왕)를 반복하다, 즉위와 함께 반원자주 정책과 반권문세족 정책을 펼친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이 정방을 1352년 폐지하며 왕권을 강화하였다(1356년 다시 폐지).

공식적으로 정방이 폐지된 것은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 회군 직후인 1389년(창왕 원년)에 상서사로 개칭되며 소멸되었다.

① 고려의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3품 이하)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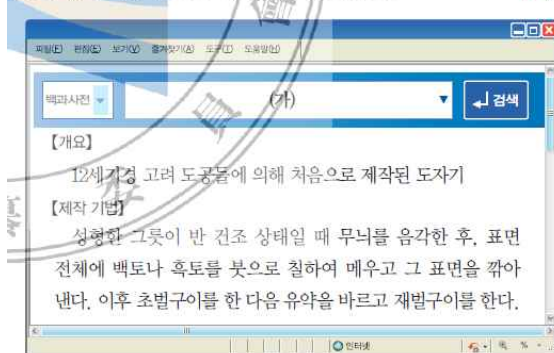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어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② 고려 후기 원의 간섭기 때에는 관제가 개편되어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합하여 첨의부로 6부는 4사(이부+예부->전리사, 호부->판도사, 병부->군부사, 형부->전법사, 공부->폐지) 중추원은 밀직사로 바뀌었고 격도 낮아졌다.

③, ⑤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방문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였다(재추 회의). 그러나 고려 후기 무신정변 이후에는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민사적 문제까지도 관장하게 되어 도당(都堂)으로 불리게 되었다. 원의 간섭기 이후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며(1279), 그 구성원수가 증가하여 귀족연합정치의 성격을 띠며 왕권을 제한하였다.

16.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 고려 중기 상감 청자

고려 자기는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독자적인 비색 청자를 개발하였고,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자기에 활용되었다.

상감청자는 그릇 표면을 파낸 자리에 백토, 흑토를 메워 무늬를 내는 방법으로 무늬를 훨씬 다양하고 화려하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고, 왕실과 관청 및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국보 68호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이 가장 유명하다.

상감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 이후에는 퇴조해 갔다.

①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국보 68호):** 운학문(구름위에 학이 노니는 문양)으로 유명한 상감청자의 대표적인 걸작이다(간송 박물관 소장).

② **토우 장식 장경호(국보 195호):** 5세기 신라. 2개가 하나의 국보를 이루는데 윗부분이 서로 조금 다르다.

③ **청화백자 매주문호(국보 170호):** 조선 전기 작품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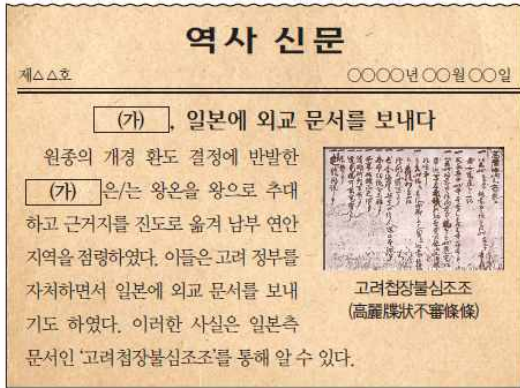
④ **백자 철화 포도문 향아리(국보107호):** 18세기 제작 추정

⑤ **청자 소문과형병(국보 94호):** 고려 전기 대표적인 비색 청자

정답: ①

17.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경 지대인 양계에 설치되었다.
- ②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 ③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 ④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었다.
- 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정답: ②

* 삼별초의 항쟁(1270~1273)

삼별초는 1219년 최충헌의 정권을 계승한 최우가 도둑 방지 등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별초란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이다. 그 뒤 야별초에 소속한 군대가 증가하자 이를 좌별초·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병사와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을 조직, 이를 좌·우별초와 합하여 삼별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삼별초는 경찰, 군사 기능을 담당한 반관반민의 준군사집단인 동시에 최씨 무신정권의 전위로서 다분히 사병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러나 항몽전에서는 그 선두에서 유격전술로 몽골병을 괴롭혔다.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1270),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배중손의 지휘 하에 진도에서 용장성을 중심으로 궁궐과 관아를 쌓고 항쟁하였다. 그 세력 범위는 한때 진도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 경상남도의 남해안 일대에 이르렀다. 또한 진도를 거점으로 한 삼별초 정부의 초기 활동은 매우 왕성하여 고려의 정통정부임을 스스로 자처하였고 황제를 칭하였. 또한 삼별초 정부는 독자적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1271), 일본과의 연결을 통한 몽고세력의 차단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400여척이 넘는 배를 이끌고 김방경, 홍다구가 지휘하는 여몽 연합군에 의해 패퇴하였다. 배중손이 진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승화후 온이 생포되어 죽자 김통정이 삼별초를 지휘하며 제주도로 옮겨가며 개경정부 및 몽골과 대항하여 항쟁하다 결국 진압되었다(1270~1273).

① 고려의 국경 양계에는 주진군이 설치되었다.

③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인조 때에는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영청(1623, 수도 방위), 총융청(1624, 경기 북부 방비), 수어청(1626, 남한산성 방비) 등이 설치되었다.

④ 조선 초기에는 정규군 외에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 있었다.

⑤ 고려 초 정종 때에는 거란을 대비하여 특수 부대인 광군을 편성하였다(947)

18.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에서 왕에게 글을 올리 파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1품에서 산직(散職)까지를 나누어 18과(科)로 한다. 대체로 경성(京城)에 살면서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시산(時散)을 따지지 않고 각각 등급에 따라 토지를 받는다.
- 「고려사」 -

<보 기>

- ㄱ.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ㄴ.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 ㄷ.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 휴양전을 지급하였다.
- ㄹ. 개국 공신에게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과전법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 말의 사전 개혁으로 시작된 과전법(1391, 공양왕 3년)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과전은 직관(현직), 산관(전직)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원칙적으로 유력자의 토지 탈점을 막기 위하여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고, 고려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에도 수조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1466, 세조 12년)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1556).

㉠ 고려 태조 때에 개국공신들의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940).

1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써 우리 고을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가)을/를 세우는 까닭이다.

- 「퇴계집」 -

○ (가)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 약정(約正)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후에야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 「율곡전서」 -

- ① 좌수, 별감을 두어 운영하였다.
- ② 문묘를 세워 선현에 제사를 지냈다.
- ③ 중앙에 설치되어 지방을 통제하였다.
- ④ 흥선 대원군에 의해 대폭 정리되었다.
- ⑤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의 기능이 있었다.

정답: ⑤

* 향약

조선 시대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어 유교 윤리를 보급하였다. 향약은 종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여씨 향약, 기묘사화 때 일시 폐지), 이항(예안 향약)과 이이(서원 향약, 해주 향약)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향약은 향촌의 양반에서 노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고, 향약 운영의 간부(직임: 약정·직월)는 향안에 오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주민 통제).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을 결집시키며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① 사족들이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인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좌수, 별감 등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② 문묘(유교의 옛 선현 배향)를 둔 조선 시대에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예서 제사를 드렸다(석전제).

③ 경재소는 중앙 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④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성리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사림의 지방 문화의 발전과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당파의 결속을 강화하여 붕당의 토대가 되고,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였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왕권 강화와 민생안정을 추구하던 흥선 대원군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1871).

20. 다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김일손의 사초가 발단이 되었다.
- ② 대운과 소운의 권력 다툼이 계기가 되었다.
- ③ 도화 정치를 주장한 조광조 등이 제거되었다.
- ④ 위훈 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 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①

* 조의제문과 무오사화(1498)

무오사화(1498): 성종 대 영남 사람의 대표적 인물인 김종직이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 (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는 글. 마치 세조에 의해 죽은 단조를 빗대는 듯이 보임)이, 그가 죽은 후인 1498년(연산군 4년)에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로 실록에 작성한 것을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 세력이 문제 삼아 김종직(부관참시), 김일손 등의 사림파를 처형한 사건이다. 그 결과 향사례, 향음주례를 주관하던 사람들의 기구가 혁파되었고, 김종직 문인으로 구성된 영남 사람이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② **을사사화(1545):** 명종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운(윤원형)과 대운(윤임)간의 권력 싸움과, 양편 모두에 사람이 가담하여 큰 피해를 받았다.

③, ④ **기묘사화(1519):** 중종 때에 현량과로 진출한 조광조를 필두로 하는 신진 사람들이 급진 개혁(훈구파 위훈삭제 등)과 관련하여, 남곤, 심정 등의 훈구 세력이 ‘주초위왕’ 모략으로 조광조, 김정 등의 사람이 처형된 사건. 사람에게 의해 추진된 소학 실천 운동이 향약과 함께 한 때 폐지되었다.

⑤ **기축옥사(1589, 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 동인에 대한 옥사)**의 주역 서인 정철(세자건저 문제로 몰락)의 처벌을 놓고서 1591년에 강경론인 북인(조식 계열)과 온건론인 남인(이항 계열)으로 분화되었다.

21.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언문(諺文)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왕이 하는 일은 그르다 하니 어찌된 것이냐.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 하면 어리석은 백성이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많이 나올 것이다.

- ① 청의 요청으로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② 법령을 정비하여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 ③ 갑인자를 주조하여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켰다.
- ④ 청과의 국경선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 ⑤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군역법을 시행하였다.

정답: ③

*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업적

세종(1418~1450)은 가장 큰 업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1443)하여 반포하였다(1446).

세종은 농업을 중시하여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1429). 또한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기구를 발명, 제작하였다.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의와 간의를 제작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었다. 자격루(1434)는 노비 출신의 과학 기술자인 장영실이 제작한 것으로, 정밀 기계 장치와 자동시보 장치를 갖춘 뛰어난 물시계였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세종 때에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역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 내외편(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칠정산 외편)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

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칠정산 내편). 이는 15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쇄 기술도 더욱 발전하여 종전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렸다(갑인자, 1434).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1433)을 편찬하고, 의방유취(1445)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와 의례에 관한 서적의 편찬 사업이 이루어져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1431~1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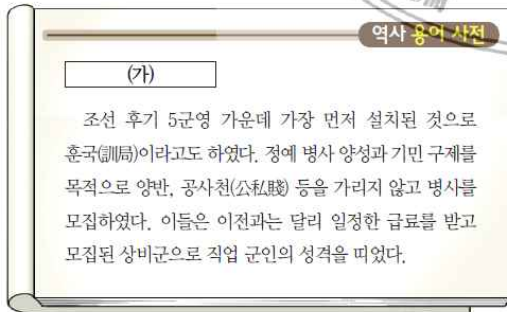
① 효종(1649~1659)은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군대를 양성하던 중, 연해주 흑룡강 방면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격퇴키 위해 청의 원병 요청을 받고 조련 중이던 조선 군사(조총병)를 보내어 청나라 군사와 함께 2차례의 정벌(나선 정벌)에 나서 큰 전과를 올렸다(1차: 1654-변급, 2차: 1658-신유).

②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1455)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다(1484년 완성, 1485년 반포).

④ 숙종 때에 만주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⑤ 영조(1724~1776)는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군역법(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을 시행하였다(1750).

22.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 ② 순조가 즉위하면서 혁파되었다.
- ③ 국방상 요지인 영이나 진에 배치되었다.
- ④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⑤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 부대였다.

정답: ④

* 훈련도감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제가 일반화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조총).사수(활).살수(창칼)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장변급료병).

② 정조 때 설치된 국왕 친위 부대인 장용영(장용위:1785->장용영:1793)는 순조 즉위 직후 수렴첨정하며 노론 벽파를 이끌던 정순왕후에 혁파되었다(1802)

③ 조선의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는데, 건국 초기에는 국방상의 요지인 영이나 진에 소속되어 복무하였다(영진군 체제).

⑤ 고려의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응양군, 용호군)과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금오, 천우, 감문, 좌우, 신호, 흥위)로 구성되었다.

23.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집현전을 통한 유교 정치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 ②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③ 호락논쟁에 참여하여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 ④ 효종의 사망에 따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에 대해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 ⑤ 성호사설을 저술하여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 서인(노론)의 영수 송시열

송시열(1607~1689): 효종의 사부이자 서인(노론)의 산림 지도자로서 효종 즉위 직후 기축봉사(1649)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북벌 운동을 주도하였고, 현종 때의 예송 논쟁(인조의 차자인 효종과 그 비의 사망에 따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에서는 신권을 강조하는 상복설(1년-기년설, 9개월-대공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남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인 노론의 영수로 6경 고학을 중심으로 주자와 다른 학설을 내세우는 유희를 사문난적으로 몰아 경신환국(1680) 때에 처형케 하였으나, 남인과 가까운 장희빈 소생을 원자로 정하는데 반대하다 기사환국(1689)으로 사사되었다.

① 학술기구인 집현전 세종 때(1420)에 설립되어 세조 때(1456)에 폐지되었다.

② 중종 대의 대표적 사림인 사림인 조광조(1482~1519)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소격서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③ 18세기 이이 학파를 계승한 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호락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충청도 노론(호론, 한원진)과 같다고 보는 서울·경기 노론(낙론, 이간)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④ 유형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한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 광우록에서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24.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왜란 이후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대마도주가 교역의 재개를 요청해 왔고, 에도 막부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 일부를 보내 주면서 수교를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대사)을 파견하였다.

- ①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썼다.
- ②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③ 계해약조가 체결되어 세견선의 입항이 허가되었다.
- ④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3포 왜란이 일어났다.
- ⑤ 초량에 왜관이 설치되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무역이 허용되었다.

정답: ⑤

* 기유약조(1609)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된 왜구의 침략으로 폐해가 심해지자 조선은 무력으로 왜구를 격퇴하는데 노력하며,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해 오면 일부 항구를 개방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다.

세종 때에는 왜구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여 이종무를 시키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1419).

또한 교역 확대를 요구하는 대마도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1426)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1443, 계해약조: 세견선 50척, 세사미 200석 이내).

그러나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 왜란(1510), 사량진 왜변(1544), 을묘왜변(1555)이 발발하자 폐쇄와 재개를 거듭하며 부산포를 제외하고 폐지하다가, 임진왜란으로 국교 단절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에도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 왔다.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대사)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고(1607), 이어 1609년(광해군 원년)에는 대마도주와 기유약조(세견선 20척, 세사미 100석 이내)를 체결하여 국교가 재개되며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었다(1609년 두모포->1678년 초량진)

① 세종 때(1443)에 통신사(通信使)의 서장관으로서 일본을 방문했던 신숙주는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여 성종 때(1471)에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일본국과 유구국(琉球國)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25.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신문

제△△호 ○○○○년 ○○월 ○○일

[특집] 주합루, 인재 양성의 산실

(가) 이/가 창덕궁 후원에 세운 주합루에는 조선 왕의 어제(御製)·어필(御筆)과 도서(圖書)를 관리하고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다. 이 기구에서는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뽑힌 문신들을 교육하였는데, 한 달에 두 번의 구술과 한 번의 필답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배출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약용, 김조순 등이 있다.



주합루 전경

- ① 홍문관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 ② 서얼 출신의 학자들을 검서관에 기용하였다.
- ③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 ④ 만권당을 설치하여 중국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 ⑤ 관학 진흥을 위해 국가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정답: ②

* 규장각을 설치한 정조의 업적

부친 사도세자가 참혹하게 죽은 임오화변(1762)을 통해 붕당정치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정조(1776~1800)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준론 탕평)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채제공, 이가환, 정약용, 권철신) 계열도 중용하였다.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창덕궁 후원 주합루에 규장각(1776)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고 서얼 출신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을 검서관으로 삼았고, 37세 이하의 참상·참하의 당하관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의정부에서 초선하여 규장각에 재교육(40세에 해제)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법전으로는 대전통편(1785)을 편찬하였다.

한편, 친위 부대인 장용영(1793)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본래 양주 배봉산에 묻혀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화성군 화산으로 옮기고(현릉원) 화성을 세워(1794~1796)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람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신해통공(1791)의 실시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① 성종(1469~1494)은 홍문관(1478)을 두어 관원 모두에게 경연관을 겸하게 함으로써 집현전을 계승하였다.

③ 중종 때(1506~1544)에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자를 천거하여 對策 만으로 시험보고 채용)를 통하여 사람이 대거 등용되었다.

④ 충선왕(1298, 1308~1313)은 원의 수도에 만권당(1314)을 설립하고 이제현 등을 원의 학자들과 교유케 하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⑤ 고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가감을 재정비하여 무학재를 포함한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26. 다음 건의에 따라 실시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공물이 각 관청의 방납인에게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몇 백 배로 징수되어 그 폐해가 이미 고질화 되었고 특히 경기도가 심합니다. 지금 병도의 담당 관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는데, 토지 1결마다 두 번에 걸쳐 각각 8두씩 거두어들이게 하고 담당 관청은 수시로 물가 시세를 보아 쌀을 방납인에게 지급하여 물건을 조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보 기〉

- ㄱ.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 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 ㄷ. 선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 ㄹ.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 후기 공납의 개혁 대동법

조선 후기들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농민들의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에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659년 김육의 건의로 삼남 지방으로 확대, 1708년 완결, 평안.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상공만 폐지,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 주무 관청은 선혜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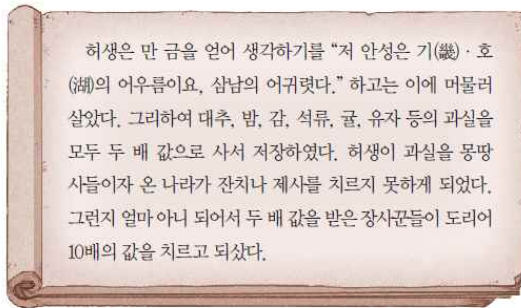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또한 조세를 현물 징수에서 쌀, 베, 돈으로 대신됨으로 조세의 금납화를 촉진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 조선 후기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다, 영조 때에 균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기존의 군포 2필에서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 흥선 대원군은 호포제(1871)를 실시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27. 다음 소설이 쓰여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풍속화를 그리는 화원
- ② 홍길동전을 읽고 있는 여인
- ③ 교정도감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관리
- ④ 시사(詩社)에서 작시를 낭송하는 중인
- ⑤ 송파대루에서 산대놀이 공연을 벌이는 광대

정답: ③

* 허생전이 쓰여진 조선 후기 사회상

비생산적인 양반을 비판하는 박지원 (1737~1805)의 소설 허생전은 조선 후기의 작품이다.

① 조선 후기에 유행한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도화서 화원 출신인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이 유명하다.

② 조선 후기에 들어 한글 소설이 점차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한글 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1612)은 서열에 대한 차별의 철폐, 탐관오리의 응징을 통한 이상 사회의 건설을 묘사하는 등 당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③ 최씨 정권을 연 최충헌(1196~1219 집권)은 고종 때(1213~1259)에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1209)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중인들은 독특한 시문인 위향문학(委巷文學)을 바탕으로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문예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⑤ 조선 후기에는 탈춤과 산대놀이(가면극)가 유명하였는데, 주로 지배층(양반)과 그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승려의 부패와 위선을 풍자하였다. 송파, 양주 산대놀이가 유명하다.

28.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2점]

△△ 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추사 김정희 특별전

기간: 2019년 ○○월 ○○일 ~ ○○일

장소: △△ 미술관 기획전시실

〈대표 전시 작품〉

(가)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제자 이상적이 청에서 귀한 책들을 구해다 준 것에 대한 답례로 그려준 작품이다.



정답: ⑤

*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의 인물인 김정희(1786~1856)는 서화(書畵) 뿐만 아니라 금석학에도 독보적인 위치였다.

대표적인 그의 그림인 ‘세한도’는 문인화로 서 노론 벽파인 그가 제주도에 유배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이의 인품을 송백(松柏)의 지조에 비유하며 그 답례로 그려준 그림이다.

서예에서는 우리 서예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금의 필법을 두루 연구하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추사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김정희는 청에 가서 고증학의 대가인 옹방강, 완원 등과 교류하고 돌아와 시·서·화를 일치시킨 고답적인 이념미를 구현코자 하였으며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 ① 신사임당(1504~1551)의 ‘초충도’
- ② 김홍도의(1737~1805) ‘총석정도’
- ③ 강세황(1713~1791)의 ‘영통동구도’
- ④ 정선(1676~1759)의 ‘인왕제색도’

29. (가) 화폐가 유통되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허적과 권대운 등이 (돈을 유통시키자고) 청하였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으니, 신하들이 모두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 왕이 그대로 따르고, 호조·상평청·진휼청 등에 명하여 (가) 을/를 주조하되 돈 400문(文)을 은 1냥의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다.

-「숙종실록」-

- ① 벽란도에서 국제 무역이 성행하였다.
- ② 담배, 면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③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 ④ 송상이 전국 여러 곳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 ⑤ 수리 시설의 확충으로 이앙법이 확산되었다.

또한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여기에는 보부상들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이외에도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팔았다. 또한 해외 원산지 작물인 고추, 고구마, 감자, 토마토 등도 전래되었다.

농업과 함께 상업도 발달하여 18세기 이후 송상, 경강 상인 등의 사상(私商)들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송상은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판매하였으며, 대외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경강 상인은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 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숙종 때에 허적 등의 건의로 주조된 상평통보(1678)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누구나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정답: ①

* 상평통보가 널리 쓰여진 조선 후기 경제상

조선 후기에는 수리 시설이 확충되며 모내기법(이앙법)이 널리 확대되었다. 농민들은 모내기법을 이용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광작).

① 고려 시대에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30.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있다.
- ② (나) - 웅진 시기의 궁궐터가 남아 있다.
- ③ (다) - 왕궁의 배후 산성이었다.
- ④ (라) - 백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되었다.
- ⑤ (마) - 금제 사리 봉안기가 발견되었다.

정답: ④

*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 문화유산

2015년 7월 백제 역사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곳,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곳,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4곳 합친 총 8곳이다.

① 백제 웅진(공주) 시기(475~538)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송산리 고분군 7호분)이 유명하다.

② 공산성은 백제의 2번 째 수도인 공주(웅진)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山城)으로 진남루 앞의 넓은 터는 백제의 궁터로 추정된다.

③ 부소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를 수호하는 중심 산성으로 주위의 보조 산성인 청산성·청마산성과 함께 도성을 방어하는 구실을 했으며, 평시에는 왕과 귀족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는 비원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백제 금동 대향로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이 절터의 한 구덩이에서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다.

⑤ 2009년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을 보수·정비하는 과정에서 심주(心柱) 상면 중앙의 사리공에서 금제 사리호, 금제사리봉안기 등 사리장엄을 발견되었다. 금제봉안기에는 시주자인 왕후가 백제 8대 귀족성 중 하나인 '사'씨의 딸로 기록돼 있어 선화공주가 미륵사지를 조성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31. (가)~(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가) 조선 주재 일본 공사인 미우라 고로가 일본 군대와 낭인들을
건청궁에 난입시켜 왕비를 시해하였다.
- (나)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직후, 러시아·프랑스·독일의 주일 공사가
외무성을 방문하여 하야시 타다스 외무 차관에게 랴오둥 반도를
청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 (다) 심순택 등이 왕을 알현하여 여러 차례 황제로 즉위할 것을 진언
하였고,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도 이어지면서, 왕은 아홉 번의 사양
끝에 이를 수용하였다.
- (라) 러시아 장교 4명과 수병(水兵) 100여 명이 공사관 보호를 명목으로
한성에 들어왔고, 왕과 왕태자는 다음날 이른 아침 궁녀의 가마를
타고 위장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가) - (라) - (다)
⑤ (다) - (라) - (가) - (나)

정답: ④

* 3국 간섭(1895.4)에서 대한제국 출범
(1897.10)에 이르는 역사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
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독일·프
랑스의 삼국 간섭(1895.4.23)으로 요동반도
를 반환하며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이 틈을 타서 민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
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은 일본 군대와 해
산 직전의 훈련대의 내용에 힘입어 경복궁
건청궁에 난입하여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민
비 시해 사건, 1895.10). 이 사건 후 개화파
정부는 개혁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다(을미개
혁, 1895.7~1896.2).

그러나 일본의 침략과 급진적인 갑오·을미개
혁의 실시로 대부분의 국민 사이에 반일 정
서가 확산되었다. 또, 고종은 왕권을 제약하
려는 개화 세력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
었고, 을미사변 후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
끼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수병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
고(아관 파천, 1896.2), 개화파 정부는 무너
졌다. 이후 고종은 단발령 철회, 의병 해산
권고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아관파천 후 일본, 러시아 사이의 세력 균형
이 이루어지자, 고종은 약 1년 만에 경운궁
(현 덕수궁)으로 환궁한 후, 자주 독립의 근
대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적 열망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에 힘입어 대한 제국을
수립하였다(1897.10). 고종은 환구단(원구단)
에서 황제로 즉위하면서 연호를 광무(光武)
로 하고, 자주 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하였
다.

32.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 ② 정부가 발행하는 순한문 신문이었다.
- ③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아 폐간되었다.
- ④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었다.
- ⑤ 국채 보상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정답: ②

* 한성순보

개항 이후 개화파는 국민을 계몽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1883).

순한문을 사용한 이 신문은 10일 마다 발행되었으며(旬報) 정부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이 신문은 개화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면서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갑신정변(1884.12)의 실패로 “한성순보”는 폐간되었지만, 온건 개화파의 주도 아래 “한성주보”가 간행되었다(1886).

① 만세보(1906~1907)는 손병희, 오세창 등 천도교에서 발행한 국한문 혼용체 신문으로 민중 계몽과 일진회의 반민족 행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경영난에 빠지자, 이완용의 사주를 받은 이인직이 1907년 인수하여, 대한신문으로 바꾸고 친일내각의 기관지로 탈바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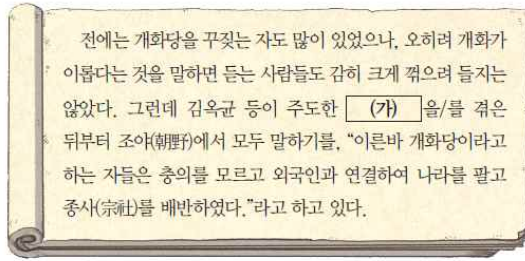
③ 일제에 의해 제정된 신문지법(1907)에 의하여, 내무대신에게 부여된 행정처분권과 보증금제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던 <황성신문>·<제국신문>이 보증금 문제로 폐간되고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 친일기관지로 전략하였다(1910).

④ 황성신문(1898~1910)은 국·한문 혼용체로 된 일간 신문으로 유림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1904년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그에 반대한 보안회를 지원하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1905년에 을사늑약에 대해 분노를 토하였던 장지연의 항일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하다.

⑤ 국채보상운동(1907)은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33.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구본신참을 개혁의 원칙으로 표방하였다.
- ③ 흥선 대원군이 청에 납치되는 원인이 되었다.
- ④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⑤ 김윤식을 청에 영선사로 파견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①

* 갑신정변(1884.12)

임오군란(1882)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개화당)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 요인들은 1884년 12월 흥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총국 건물 완공의 축하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헌법에 의해 국왕의 권력을 제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갑신정변 추진 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약했고, 민중의 지지 속에 정변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변 직후 조선은 정변에 관여하여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였으나,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한성 조약(1885)을 체결하여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또한,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불리해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청에 보냈다.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알린다는 내용의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

② 대한제국의 광무개혁(1897~1904)은 구본신참(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을 원칙으로 삼아 추진되었다.

③ 임오군란(1882.6) 때의 난병들이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 등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자 민비는 종적을 감췄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민씨 일파로부터 군대 파견을 요청받은 청은 군란을 진압하고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해 갔다(3년간 연금).

④, 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1876.1)이 체결됨에 따라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이 차례로 개항하게 되었고, 개화 정책 추진기구로 통리기무아문(1880)을 설치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일본과 청으로부터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에는 박정양을 위시로 조사 시찰단(1881)을, 청에는 영선사(1881) 김윤식과 학생, 기술자들을 파견하였다.

34. 밑줄 그은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그들의 통문에는 대개 "벌레같은 왜적들이 날뛰어 수도를 침범하고, 임금의 위태로움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접(接)들은 힘을 합하여 왜적을 쳐야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라고 불리는 자가 전라도 병력 수십만 명을 이끌고 공주 삼리에 이르러 진을 치고 보은의 병력과 서로 호응하고 있으므로 그 기세가 갑자기 확대되었습니다.

- ① 탁지부에서 국가 재정을 전담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 ③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홍경래의 주도로 난을 일으켜 선천, 전주 등을 장악하였다.
- ⑤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정답: ⑤

* 동학농민운동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녹두장군이라 불리우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욕스럽고 포악함에 봉기(고부 봉기)한 이후,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여 4월 보국안민(나라를 도와 백성을 편안케 한다)과 제폭구민(부패한 관리를 제거하여 백성을 구한다)을 내세우며 다시 봉기하였다(1차 봉기: 무장 기포 -> 백산 봉기). 이후 황토현, 황룡촌에서 정부군에게 승리하며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청군이 출동하고 텐진조약에 의해 일본군도 출동하자, 6월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각지에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7월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며 내정을 간섭하자, 농민군은 10월 다시 봉기(2차 봉기)하여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파견된 우세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12월 공주 우금치에서 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① 2차 갑오개혁(1894.12~1895.7) 때에 탁지부에 의한 재정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② 임술농민봉기(1862) 때에 진주성에서는 유계춘을 봉기가 일어났다.

③ 최초의 애국계몽운동단체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④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1800~1863)에 삼정의 문란과 서북지역민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되어 홍경래의 난(1811)이 발생하였다.

35.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연통제를 통해 독립 운동 자금을 모았다.
- ②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③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에 헌의 6조를 건의하였다.
- ⑤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통감부에 의해 해산되었다.

정답: ③

* 신민회(1907~1911)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밀 결산였다.

신민회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국내에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서간도 삼원보: 경학사,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을 꾀하다가 105인 사건(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날조되어 신민회 회원과 관련이 있는 안악 사건으로 확대되어 105인이 기소된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관련 활동으로 언론으로는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 교육으로는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등이 있으며 산업으로는 평양의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①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9 출범)는 독립자금과 국내 정보를 모으기 위해 교통국을 설치하고 연통제와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거류민단제 등을 실시했다.

② 1918년 상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은 1919년 2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④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달성하려는 정치운동을 전개한 독립협회(1896~1898)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며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군주제 실현을 추구하였다.

⑤ 헌정 연구회(1905년 창설, 입헌군주제 표방)의 후신인 대한자강회(1906년 창설)는 1907년 고종 황제의 퇴위와 순종 황제의 즉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하다 일제 통감부에 의해 보안법을 적용받아 강제 해산되었다.

36.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일본 미야기 현에 위치한 다린 사(大林寺)에는 하얼빈 의거로
 위순 감옥에 수감되었던 (가)의 유목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석에 새겨진 글인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뜻으로 그가
 사형장으로 향하기 직전, 현병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의 간청으로
 써 준 것이라고 한다. 지바 도시치는 고향으로 돌아와 세상을 떠날 때
 까지 그의 위패를 사찰에 모셔 두고 뉘를 기렸다. 이는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한 일본인의 존경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준다.

- ① 일본 국왕이 탄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 ②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③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저격하였다.
- ④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 ⑤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하였다.

정답: ②

* 안중근(1879~1910)

안중근(1879~1910)은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삼흥학교를 세우는 등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연해주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써 국내진
 공 작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이듬해 초 여순 감옥에
 서 순국하였다.

① 김구가 이끄는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이봉
 창(1900~1932)은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으나 실패하였다
 (1932.1)

③ 1908년 3월에 장인환(1876~1930), 전명
 운(1884~1947)은 1차 한일협약에 의해 외교
 고문으로 왔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샌프
 란시스코 부두에서 처단하였다.

④ 이재명(1886~1910) 열사는 을사조약의
 원흉 이완용을 칼로 저격하였으나 안타깝게
 도 실패하였다(1909.12).

⑤ 김구가 이끄는 한인 애국단(1931) 단원인
 윤봉길은(1908~1932) 1932년 4월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을 응징
 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경계하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으며,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이 한
 국인의 항일 독립 투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7. 밑줄 그은 '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105인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 ②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③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연해주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정답: ③

* 3.1 운동(1919)

일제의 무단통치로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민족자결주의와, 도쿄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에 고무되어 독립 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대표(종교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1).

서울(탑골, 대한문, 광화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 운동은 고종의 국장(인산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군중들과 학생, 종교인, 상인, 노동자가 참가하면서 점차 지방도시로 확산되었고, 뒤이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파급되었다. 비폭력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차츰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식민통치 기관, 친일 지주 등을 습격하는 무력적인 저항 운동으로 바뀌어 갔다. 또, 3·1 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와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국외 동포에 의해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탄압하였다(유관순 순국, 제암리 교회 학살).

3·1 운동은 각계각층(지식인과 지도층이 주도했지만 노동자, 기생 등도 참여)의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와 여성 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통치방식을 기만적이긴 하지만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①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날조되어 신민회 회원과 관련이 있는 안악 사건으로 확대되어 105인이 기소된 사건

② 국채보상운동(1907)은 각종 계몽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의 여러 언론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④ 1911년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으나,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또한 권업회를 바탕으로 군정(軍政) 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1914)를 조직하여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선임하고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다

⑤ 1926년 사회주의자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6.10 만세운동)

38. 다음 가상 뉴스의 보도 내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1919	1923	1931	1935	1941	1945
(가)	(나)	(다)	(라)	(마)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국민 대표회의 개최	한인 애국단 조직	한국 국민당 창당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	광복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중.일 전쟁(1937) 발발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인사들은 단일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총칭에 정착하기 직전에 한국 독립당(조소앙), 한국 국민당(김구), 조선 혁명당(지청천)을 해체하고 한국 독립당을 새롭게 결성하였다(1940.5).

1940년 9월 총칭으로 옮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미주 지역의 의연금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1940.9.17.). 이어 동년 10월에는 주석제 개헌(4차)을 단행하여 김구 단일 지도 체제가 이루어졌다.

한국 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으며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

한편, 태평양 전쟁이 발발(1941.12)하자 임정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임정과 라이벌 관계였던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 참여를 결의하여 1942년 7월에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고, 1944년 4월 주석·부주석제 지도체제로 개헌(5차) 이루어져 한독당의 김구와 민혁당의 김규식 체제가 이루어졌고, 이 상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답: ⑤

* 임시 정부의 조직 변화(5차 개헌)

임시정부 헌법 변천

- 임시헌장(1919.4: 의정원 규정과 공화정 -> 이후 헌법의 기본틀)
- 통합 임정 1차 개헌(1919.9: 대통령제)
- 2차 개헌(1925: 국무령 중심 내각책임제)
- 3차 개헌(1927: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
- 4차 개헌(1940: 주석 중심제)
- 5차 개헌(1944: 주석·부주석 중심제)

39.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중·일 전쟁 발발 직후에 조직되었다.
- ②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강령으로 삼았다.
- ③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무장 단체였다.
- ④ 중국군과 함께 쌍성보 전투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 ⑤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정답: ②

*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나 친일파 거두 등을 처단하고, 조선 총독부나 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식민지 착취 기관을 파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부산 경찰서(박재혁)를 시작으로 밀양 경찰서(1920, 최수봉), 종로 경찰서(1923, 김상옥), 조선 총독부(1921, 김익상), 도쿄의 일본 왕궁(1924, 김지섭),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감행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동포들에게는 항일 의식과 독립에의 희망을 심어 주었다.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1923)’에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③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1912년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으고,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며 대한제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복벽주의를 추구하였다.

④ 지청천(1888~1957)은 1930년대 초반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중국군(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1932), 사도하자 전투(1933), 대전자령 전투(1933)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⑤ 한국 광복군은 미국과 미국전략정보국(OSS)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일제의 다소 이른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40.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위정척사를 내세워 영남 만민소를 올렸다.
- ②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③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 계몽을 위해 노력하였다.
- ④ 단군 숭배 사상을 전파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 ⑤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 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답: ④

* 서일과 대종교

을사 5적 암살단을 이끌던 나철(1863~1916), 오기호(1863~1916) 등은 1909년에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대종교는 국권 피탈 후 교단을 만주로 옮기고 많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였고, 3대 종사 서일(1881~1921)은 중광단(1911)을 결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을 전후로 하여 정의단, 군정부를 거쳐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어 청산리대첩(1920.10) 등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간도참변(1920.10~12) 후에 그는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모든 제 독립군 부대를 '대한독립군단'으로 편성하여 소련 자유시로 넘어갔으나 적군에 의해 무장해제와 이를 거부하는 독립군들이 참살당하자(자유시 참변, 1921.6), “나라 땅은 유리쪽으로 부서지고 티끌모래는 바람비에 날렸도다. 날이 저물고 길이 궁한데 인간이 어디메뇨.”라는 글귀를 남기고 대종교 수양법의 하나인 조식법(調息法)으로 자결하였다.

①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은 조선책략이 유포되어 미국과의 수교가 고려되자 위정척사를 내세우며 영남만민소를 올려 반대하였다(1881).

②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최초의 근대 사립 중등학교인 배재학당(1885)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③ 경향신문은 본래 1906년 10월 천주교에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발간한 순한글판 주간신문으로 간행되다, 1962년에는 독립지가 되었고, 1950년대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를 비판하다 1959년 강제폐간되기도 하였다.

⑤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에서는 소년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방정환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1923.5.1),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41. 밑줄 그은 '이곳'에서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권업회를 세우고 신문을 발행하였다.
- ② 한인 자치 기관인 경학사를 설치하였다.
- ③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 ④ 서전서숙, 명동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⑤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정답: ③

* 미주 하와이의 민족운동

미주 이주는 1902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하와이 농장주들이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대한 제국 정부에 한국 농민의 이민을 요청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농민은 정부의 해외 취업 알선을 받아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주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하와이에는 7000여 명의 동포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의 일부는 미국 본토, 멕시코, 쿠바 등지로 이주해 갔다. 하와이로 이민 간 동포는 사탕수수 농장일뿐만 아니라, 철도 공사, 개간사업 등 고된 일을 하면서 인종 차별까지 당했다. 특히 결혼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불만이 높아지자, 농장주들의 요청으로 신랑과 신부의 사진을 보고 결혼을 결정짓는 사진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주 교민들은 학교와 교회 등을 세우고, 대한인 국민회 등의 자치 단체를 만들어 한인 사회를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가장 큰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한국광복군 창설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한편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으나,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승만이 군사활동보다 외교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데다 박용만이 실전에 참가하기 위해 극동 지역으로 떠나면서 조직 유지가 어려워져 결국 해체되었다(1917).

① 러시아령 연해주 지역에서는 1911년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 조직인 권업회가 설립되고 권업신문을 발행하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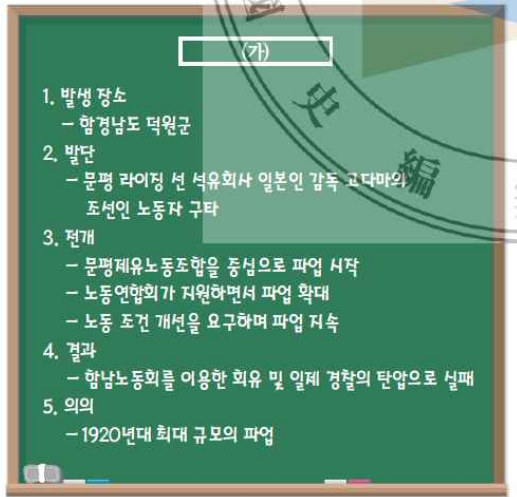
② 신민회는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서간도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④ 북간도 용정촌, 명동촌 등에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자 서전서숙(이상설), 명동 학교(김약연) 등 민족 학교가 세워져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⑤ 1919년 월슨의 '민족 자결론'에 고무된 일본 동경 유학생들의 조직인 조선 청년 독립단(최팔용, 백관수 등)은 2·8 독립 선언을 선포하여 국내의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42.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암태도 소작 쟁의에 영향을 주었다.
- ② 비합법적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③ 일본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조선 농농 총동맹이 창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⑤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정답: ⑤

* 원산 총파업(1929)

2번째(1880) 개항지인 원산에서는 일찍부터 노동 운동이 발달하여 1925년에 원산 노동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런 가운데 1928년 9월 함경남도 덕원군 문평리에 있는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의 조선인 노동자 구타 문제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회사 노조의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노동자의 요구 이행을 약속했던 문평 제유회사가 1928년 12월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산노련은 1929년 1월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국내 전국 각지의 성금, 식량 후원과 일본 노동자들의 동조 파업, 중국, 소련, 프랑스 노동자들의 격려 전문을 보내오는 등 4개월 동안 지속된 총파업은, 상급 어용 노조인 함남 노동회의 회유와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노동 운동이 일제에 저항하는 반일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일제 하 최대의 노동 운동이었다.

① 1923년의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소작 쟁의(암태 소작회 주도)는 한국인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간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 시킨 소작쟁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② 1930년대(대륙 침략 이후)에는 농민·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비합법적 조합인 혁명적 농민 조합과 노동조합(적색조합)을 만들어 점차 항일 민족 운동(일제 타도)으로 발전해 갔다.

③ 1920년에 들어서 1차 세계대전 전후 특수으로 인해 급속도로 공업화된 일본은, 일본 기업의 자본이 좀 더 한반도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회사령을 폐지하였고(1920), 1919년에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여 일본 기업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④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되며 회사·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차별적 노동조건으로 고통당하였고, 소작농민들 역사 산미증식계획으로 고통이 심화되자 1924년 노동자 농민의 공동 조직인 조선 농농 총동맹(1924)이 결성되었다.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며,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모두 전국적 조직으로 커지며 쟁의는 더욱 확산되었다.

43.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단체는 1927년 2월 '민족 유일당 민족 협동 전선'이라는 기치 아래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제휴하여 창립한 단체이다. 창립 총회에서 이상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창립 10개월 만에 지회가 100개를 돌파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 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 ②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③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기본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④ 토지 개혁 실시를 포함한 좌·우 합작 7원칙을 제시하였다.
- 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 대회를 계획하였다.

정답: ⑤

* 신간회(1927~1931)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 협동 전선(민족 유일당)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2, 초대 회장 이상재)

신간회는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 착취 기관 철폐 등을 주장하였고, 사회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지원,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신간회는 민중대회 사건 후, 새 집행부의 투쟁 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대립이 생겨 해소되고 말았다(1931). 하지만, 신간회는 국내 민족 운동 세력의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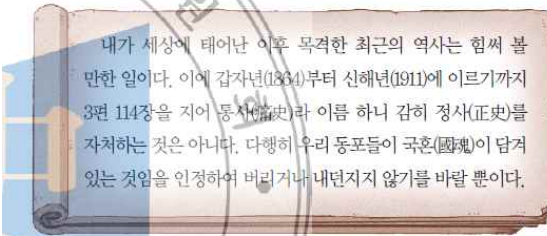
①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한 조선어 학회(1931)는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을 시도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해방 후인 1957년 완성, 발간하였다.

②, ③ 초기 임시정부는 파리강화회의(1919)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후반기인 1941년 11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다.

④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우익 세력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에 맞서, 여운형과 김규식은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1946.7) 합작 운동을 추진하여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에까지 이르렀다(1947.10).

44.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 ② 진단 학회에 참여하여 진단 학보 발간에 기여하였다.
- ③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독립 투쟁 과정을 서술하였다.
- ④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두었다.
- ⑤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정답: ③

* 국혼을 강조한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박은식(1859~1925)은 개항기 역사(1864~1911)를 다루며 국혼 사상을 언급한 '한국통사(1915)', 1884~1920년의 독립투쟁의 역사를 다루며 국혼, 국백 사상을 역설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즉, 그는 일제에 빼앗긴 것은 '국백' 뿐이요, '국혼'이 살아있으면 광복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① 최남선(1890~1957), 이병도 등은 총독부가 설치한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② 이병도(1896~1989) 등 한국 학자들이 1934년 세운 국학 연구 단체인 진단 학회는 진단학보를 발행하며 실증주의 사학을 발달시켰다.

④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는 독사신론(1908)을 저술하여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⑤ 1930년대에는 백남운(1895~1974)에 의해 사회 경제사학이 대두되었다. 그는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45.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사진은 이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시가 행진을 하는 모습이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창립 총회에서 다음의 활동 지침을 정하였다.

첫째, 조선인의 산업적 지능을 개발하여 산업을 장려한다.
둘째, 조선인의 산품(産品)을 애용하여 산업을 융성하게 한다.

- ① 일제의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았다.
- ② 김광제, 서상돈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 ③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④ 산업 육성을 통한 민족의 실력 양성을 도모하였다.
- ⑤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본가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고 비판받았다.

정답: ⑤

*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 물산장려운동

1920년 회사령 폐지와 1919년에 일제가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1920년 8월부터 조만식 등이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평양에서 조선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실력양성 운동인 물산장려 운동은 이듬해 서울로 확산되어 1923년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하였고, 청년 학생 중심의 자작회와 실력양성을 도모하는 조선청년연합회, 여성단체인 토산애용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 사람 조선 사람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전개된 청년 단체들의 금주 단연 운동, 자작자급 운동, 소비 절약 운동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민족 자본은 물산장려 운동으로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토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영세민의 생활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켰다. 또한 물산장려 운동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②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대한자강회 등의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김성희, 유문상 등)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로까지 확산되었다.

46. 밑줄 그은 '석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프랑스가 병인박해를 구실로 침략하였다.
- ②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점령하였다.
- ③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 ④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차를 요구하였다.
- ⑤ 일본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귀속시켰다.

정답: ③

* 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41호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서,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어져 내려왔다.

삼국사기 기록의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통하여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한 사실과, 고려사 지리지(동계 울진현조), 세종 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안쪽에 표기) 등의 문헌 등을 통해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을 본토에 옮겨 살게 하여(공도 정책) 한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였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던 안용복이 이 곳을 왕래하는 일본 어부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1696).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이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였다(1884).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 칙령(41호)으로 두 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石島)도 관할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1900.10.25).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대한제국에 통보치 않음) 자국의 영토(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으나(1905), 해방 후 되찾았고 1952년부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① 프랑스는 병인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공하였다(병인양요, 1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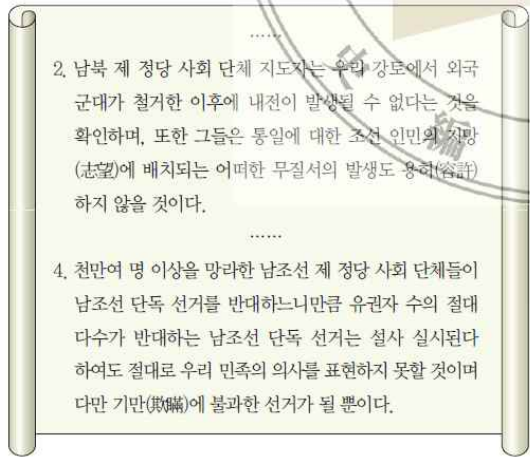
② 조.러 밀약설에 위기감을 느낀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였다(1885~1887).

④ 러시아는 저탄소 설치를 위해 부산의 절영도 조차를 시도하였으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의해 저지되었다(1898).

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으로부터 안봉 철도 부설권을 얻어내고 간도를 청에 귀속시켰다(1909)

47. 다음 성명서가 발표되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1945.8.	1945.12.	1946.3.	1947.5.	1947.11.	1948.7.
(가)	(나)	(다)	(라)	(마)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UN 총회의 남북한 총선거 결정	대한민국 헌법 공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 남북협상(1948.4)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1945.12)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6. 3~5) 열렸으나 협의의 대상이 될 단체를 놓고 미·소 간에 이견이 심하여 무기한 중단되자 좌우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정읍 발언: 1946.6) 지지 세력을 모아갔다.

이에 김규식(중도 우파)과 여운형(중도 좌파) 등은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기 위해 좌우합작 위원회(1946.7)를 결성하고,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른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 참가 후 신탁통치 문제 해결, 유상매상과 무상분배 원칙하의 토지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1946.10).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을 중시하는 중도파와 김구 등은 찬성하였고, 단독정부 노선을 취하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박헌영 등의 급진적 좌익 측은 좌우합작 운동에 반대하였다.

한편 미 군정은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미 군정은 통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준비를 하는 기구인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를 발족시켰다(의장: 김규식, 민정장관: 안재홍).

그러나 1947년 미국무부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이 심화되며 미군정의 지원이 철회되고, 여운형의 암살(1947.7)과, 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 5~10.)가 또다시 협의의 대상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결국 결렬되며, 운동은 실패하였다(1947.12).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1947.9).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제의하였고, 북한은 제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도 요구하여 1948년 4월, 두 회의를 포함한 남북협상이 개최되었다. 연석회의를 통해서는 외국 군대의 즉각 철수, 총선거 실시, 남한단독선거 부인 등을 합의하였다.

김구·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김두봉과 별도 회담을 가져 남한과 북한의 단독 국가 수립을 모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김일성과 김두봉은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북한 측의 의도대로 진행된 4차 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1948. 4. 19~4. 30.).

48.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3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나) 외환 위기로 인해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가 부도는 모면하였으나 기업 구조 조정, 대규모의 실업 등이 발생하였다.

- 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②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③ 미국의 경제 원조로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④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으로 중화학 공업이 육성되었다.
- ⑤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정답: ①

* 1980년대 후반~1997년 사이의 경제 상황

1950년대: 6.25 전쟁 중과 전후복구 기간에는 미국이 많은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다. 원조는 주로 식료품·농업용품·피복·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제당·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삼백 산업). 물자 부족이 해소되고, 소비재 공업도 성장하였으나 밀이나 면화 같은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와 당시 농촌 경제는 타격을 입었다.

1960년대: 4·19 혁명 이후 등장한 장면 정부는 차관 도입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1962년부터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주도 하에 새로 수립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에 울산 공업단지와 마산 수출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제철(1968)과 소양강댐(1967)과 경부 고속국도(1968~1970)가 건설되기 시작

하였다. 한편 한·일 협정 체결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1970년대:**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중화학공업, 전자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구미공업단지, 울산석유화학 공업 단지, 여수종합화학 기지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공업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초 국제유가 폭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수출 증대(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와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오일 달러를 획득하여 극복하였다.

1980년대: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 경제는 전두환 정부가 중박 투자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금융 시장 일부를 개방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3저(저금리, 저물가, 저환율)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 기술 집약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김영삼 정권 때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되며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체제가 확장되자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1996)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임기 말에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

2000년대: 김대중 정권 때의 6.15 공동선언(2000)의 후속조치로 개성공단이 건설되어(2004)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노무현 정권 때에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2007년 일부 분야 한정 체결, 재협상 후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

49.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의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재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변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 ①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으로 정해졌다.
- ②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다.
- ③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 ④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 ⑤ 임기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접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답: ③

* 사사오입 개헌(1954.11)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 민의원 선거에서는 관권의 개입으로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본래 2차 개헌(발췌개헌)에 따라 양원(참의원.민의원) 선거가 있어야 하나 6·25 전쟁 직후 국내 정세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참의원 선거는 치르지 않았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하자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이를 부결시켰으나, 자유당은 부결 이틀 만에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가결을 선언하였다 (2차 개헌: 1954.11).

① 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6년인 적은 없다(4년이고, 제한국회에서만 2년이었음).

② 1960년 4.19 시민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후 구성된 허정 과도 정부는 부정 선거를 계획한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고, 국회는 6월 15일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8월에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④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1972)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35조에 규정한 헌법 기구)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하고, 국회의원의 1/3을 선거하고(대통령 추천, 유정회 의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⑤ 1980년 8월 전두환이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직후, 동년 10월 8차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의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50. 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4월 13일에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 ① 허정 과도 정부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 ② 양원제 국회가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 ④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 ⑤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정답: ⑤

* 6월 민주화 운동 (1987)

대통령 간선제 헌법과 전두환 정부 (1980~1987)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간선제 헌법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6월 민주 항쟁).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당 대표 노태우 발표),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현행 헌법).

그러나 그해 12월에 있었던 13대 대선에서 1노(여) 3김(야)으로 야권이 분열되어 여당의 군인 출신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①, ②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원인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4.19 시민혁명이 발발하였다. 4월 25일 교수들의 시위가 있자 4월 26일 이승만은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였고, 그의 지명으로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부정선거 관련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고, 국회는 6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7월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8월).

③, ④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5.18 만주화 운동).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살상되며 5월 27일 진압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